

“다문화가정이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남원시 동충동, 찾아가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간담회 개최

남원시 동충동주민센터(동장 조환익) 2층 회의실에서는 최근 2019년 다문화가족행복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8세대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난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생활 안정 도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저녁식사, 동장 격려, 이주여성 개인 소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예코백 만들기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향상인 "예코백 만들기에서는 캔버스 가방에 밀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칠하는 작업을 가정별로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온가족이 함께 해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조환익 동장은 "이날 간담회로 다문화 가정이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파악해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시 동충동주민센터(2층 회의실에서는 다문화가족 8세대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수병원 하바롭스크 목사 부부 예수병원 탐방

러시아 하바롭스크 현지 목사 부부 일행 33명이 최근 예수병원을 찾아 예수병원과 예수병원의학 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했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이날 이리 남중교회 박춘수 목사의 인솔로 예배실에 모인 하바롭스크의 16가정 목사 부부 일행에게 인사말을 통해 "예수병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우를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12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 최고의 의료선교 병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하바롭스크 목사 부부 탐방객 일행은 예수병원 소개 동영상 시청하고 예수병원 주요 시설을 돌아본 후 예수병원의학역사박물관에서 설립 121년을 맞은 예수병원의 이웃사랑의 역사와 의료선교 등 활동을 살펴보고 예수병원 선교사 묘역을 참배한 후 탐방 일정을 마쳤다. /김진영 기자



2019 민주평통 청소년 통일골든벨 전북대회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는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전주 시내 체육관에서 전북지역 고등학생, 지도교사, 민주평통 자원위원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청소년 통일골든벨 전북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북대회에서는 A/B조별 예선대회와 패자 부활전을 통해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120여명의 1차 본선진출자를 선발하였으며, 이어 BEST OF BEST 50인을 선발, 골든벨의 꽃인 전국본선 진출자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별 자체 예선대회 입상자 21개교 420여명이 도전하였으며,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KBS-1TV '도전 골든벨' 8월 특집방송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김진성 기자



유희태 부위원장,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공동대표로 위촉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특별위원회 유희태 부위원장이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공동대표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회장 권기재)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지식인 지식나눔대회 및 인증식을 개최하고 고문, 공동대표, 자문위원과 지회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된 유희태 부위원장은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올해 들어서만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 공로상과 대한민국 국민대상 국가발전공헌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등 금융인 출신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과거 우리 사회의 성장위주와 성과독점주의로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는 사람중심의 나눔문화를 통해 국가 번영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지식인협회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다"며 "신지식인인을 통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는 중앙회를 비롯해 5개 지역본부 및 베트남, 인도, 호주에 해외본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으로 명성이 높은 단체다. /우주=전문선 기자



임실군 귀농귀촌협의회장 이·취임식, 제5대 장복수 회장 취임

임실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최근 임실농협 하나로마트 3층 대강당에서 귀농귀촌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철우 임실부군수,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이용호 국회의원, 한완수 전북도의회 의원, 황일권·이명로 군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김종규 회장이 이임하고 제5대 장복수 회장이 취임했다.

임실군 귀농귀촌협의회는 2012년도에 설립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한마음대회, 마을환영회, 재능기부, 귀농귀촌 멘토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정 임실 홍보와 귀농귀촌을 활성화뿐만 아니라 임실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살기좋은 농촌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장복수 신임회장은 "희망의 땅 임실! 행복한 귀농귀촌! 을 목표로 귀농귀촌인들이 임실군에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제2회 진안홍삼배 전라북도 남·녀 궁도대회 '성황'

진안군 궁도협회(사투 탁영규)가 주관하는 제2회 진안홍삼배 전라북도 남·녀 궁도대회가 신갑수 군의장, 박주홍 진안군체육회 수석부회장, 박수현 전라북도 궁도협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진안 공도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단체전, 노년부, 장년부, 여자부 등 4개부 400여명의 도내 궁도 동호인이 참가해 흥심의 고장 진안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단체전 군산시(진남정) ▲노년부 조재웅(전주 천양정) ▲장년부 소재춘(남원 관덕정) ▲여자부 김은지(김제 금만정)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전라북도 궁도 저변 확대와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문)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정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영지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3896	정읍지사 538-3787
	고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시축구협회, 익산시내 축구클럽 임원진 간담회 개최

익산시축구협회(회장 왕경배)는 오는 23일 익산시장애인 전국축구대회를 열기 전 익산시내내 축구클럽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지난 14일 오후 7시경 익산시 팔봉실내축구전용구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축구협회장 왕경배, 익산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 고석채, 익산시축구협회시설 부회장 이주성 및 각 클럽 임원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간담회의 목적과 동기는 익산시축구협회발전을 위한 임원진 및 각 클럽 회장단 및 감독 등 집행부가 참여해 상호간의 인연을 물이면서 상호간의 교류의장을 마련하고 화합을 조성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